

기획의정: 정우식 / 편집: 이민영 / 발행일: 2022년 3월 30일 / 발행처: 전주 완산구 영경1길 16(3층) / ☎ 063) 905-0218, 010-2050-0650 (fax: 227-0650)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www.blue21.or.kr

2022년
3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봄을 기다리며...



이사장 정우식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쉬 떨어지지 않는 시절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더니
 마음속까지 봄이 온 건 아닌가 봅니다.
 어쩌다가 분노와 무력감이 번갈아 오가는 봄을 다 맞습니다.
 기운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자칫 마음 붙들지 않으면 사람 상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봄인 걸요.
 봄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제 낮이 나갈 즈음
 신석정 시인의 시 ‘대춘부(待春賦)’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혹독했을 전쟁 직후의 세월을
 선생은 어찌 견뎠을까 생각하며 힘을 내 봅니다.

우수도/경칩도/머언 날씨에/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기에/
 호홉은 가빠도 이토록 뜨거운가?//손에 손을 쥐고/불에 불을 문지르고/의지한 채 체온을 길이
 간직하고픈 것은/꽃피는 봄을 기다리는 탓이라.//산은/산대로 첩첩 쌓이고/물은/물대로 모여
 가듯이//나무는 나무끼리/짐승은 짐승끼리/우리도 우리끼리/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손에 손을 쥐고 불에 불을 문지르고 의지한 채
 물은 물대로 모여 가듯이
 우리도 우리끼리 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표지 사진을 남들의 가슴마다에 바칩니다.
 처절한 동백꽃잎처럼 함께 땅에서 눈 밝게 뜨고 다시 솟구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글 싣는순서

- | | |
|---|---|
| 01 땅에서 솟는 동백꽃 - 진도윤림산방 | 07 [향토 역사문화 답사] - 일제 수탈의 역사 현장을 찾아서 |
| 02 인사말- | 10 [책 이야기] - 『푸른 늑대의 파수꾼』 작가와 함께한 독서캠프 |
| 03 봄날 - 김영춘 | 11 [교단일기] - 오늘도 평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자. |
| 04 소식, 하나 - 제57차 이사회, 소식, 둘 - 2022년도 정기총회
전북지역교육연구소, 겨울방학 특강 | 12 [고전의 향기] - 순자는 법충(法蟲)들의 해악을 경고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회원동정 |
| 06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 |

봄 날

김영춘

이 꽃을 바라보는 동안에
저 꽃이 핀다

저 꽃이 떠나기도 전에
이 꽃이 온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쉬지 않고 핀다

마치 이 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듯하다

올해도 이 봄언덕에 서서
겨울을 보낸 후에 피어나는 꽃 하나의 세상을 본다

누구에게나 가슴 두근거리는 하루가 있었으리라

김영춘

1957년 고창 해리의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에서 태어남.
1988년 실천문학에 눈 내리는 일 외 3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 시작.
시집으로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푸른숲)과 '나비의 사상'(작은숲)이 있으며, 오랜 교직생활을 마치고 전주와 고창을 오가며 가만히 있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자문위원이다.



제57차 이사회

2022년 2월 16일 오후 5시 30분, 본원 교육실에서 제57차 이사회가 열렸다.

① 2021년 결산의 건, ② 조직강화특위 보고의 건 등 안건 처리와 보고가 있었다.

특히 2022년 1월 중에 3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조직 전반에 대한 평가와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해온 조직강화특위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사들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회원 참여와 동아리 활성화, 일반회원, 퇴직 교원에 대한 배려, 회원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앞서 2월 15일 오후 5시30분, 본원 사무실에서 2021년도 사업/회계 감사가 있었다.

2022년도 정기총회

2022 정기총회가 2월 23일(수) 오후 6시, 본원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정우식 이사장의 진행으로, 2021년 사업 보고 및 결산,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의 보고 안건을 심의하였다. 올해 총회는 코로나 국면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매우 훈훈하면서도 활기찼다.

총회 후 남상팔 원장(이리공고 교사)의 퇴임을 축하하는 꽃다발 전달식이 있었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 겨울방학 특강

— 김영춘 시인의 시(詩) 이야기 4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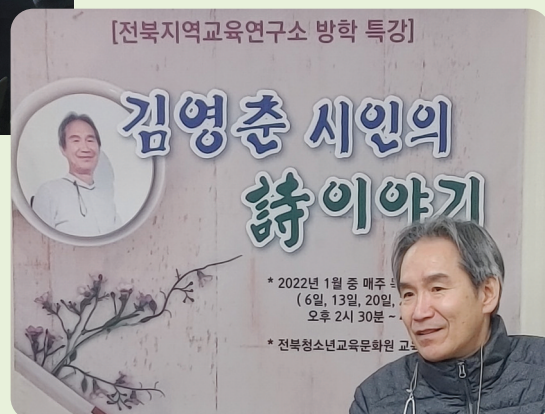
본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를 통하여 삶을 성찰하고 지혜를 얻고자 ‘김영춘 시인의 시 이야기’ 특강(1월 매주 목요일, 4회)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김영춘 시인의 명강의가 매시간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김영춘 시인은 강의에서 노래와 시로 연결되는 세계를 보여주며 참석자들의 감성을 이끌어내 주었다. 그리고 ‘새로움’을 생각하고 일깨운 시간이기도 했다. 또 좋은 시란 자신만의 삶의 기둥을 세우고 자신의 언어로 쓴 ‘시’라며 좋은 시를 소개해 함께 읽었다. 우리가 ‘좋은 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스스로의 삶을 세워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기에 김영춘 시인은 우리에게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새해 화두로 제시한 것 같다. 시인은 자신이 쓰고 싶은 시는 대단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게 아닌 것처럼’ 쓴 시라고 말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에게는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삶과 글쓰기의 지혜임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특강을 코로나 방역으로 참석자를 소수로 제한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무척 아쉽기만 했다.



‘김영춘 시인의 시 이야기’ 특강에 참여한 몇 분의 소감을 싣는다.

- 젊은 시절, 시인이 살았던 남도의 어느 하숙집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Joan Baez의 Donna Donna~ 음악과 함께 담담하게 써 내려간 글들이 저의 비슷한 기억을 소환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김영춘 시인과의 만남은 건초에 덮여 있던 나의 감성의 어린 싹을 찾아내어 물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삶은 누구나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좋은 시란? 오욕칠정을 담고 있되 담담함이 있어야 하고 시가 찾아가는 길에는 그들이 있어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 짙게 남아 있다.
- 시인의 이야기를 듣는 건 설레고 흥분된다. 같은 이야기를 시인이 하면 확실히 새롭다. 첫날, 시와 도의 경계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아쉬웠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거라 믿는다. 나에게 약간 파장이 다른 세계로 빠져든 사건이었다.
- 시인의 말씀-시는 언어의 기교, 유희 등 꽤 부리면서 쓰는 것을 넘어 쪽~밀고 나가는 힘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어찌 시뿐이라? 인생이 그렇고 세상살이가 그렇다.
- 시간이 갈수록 짧지만 여운과 생각이 많이 남는 것이 시이더라구요. 마침 좋은 강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춘 시인이 들려주는 시 이야기는 시를 읽으며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사람은 왜 마음으로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시인의 언어로 이야기해주셨다. 시인 자신이 삶에서 시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강건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주셨고 참여한 우리는 매회 2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
- 삶의 그늘을 찾는 시, 이봉환 님의 ‘사생결단’이 다시 봐도 쿵, 머리가 가슴을 친다. 별것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쓴 시, 자기의 삶을 중심에 세운 시, 월트 휘트먼과 북효근 시인과의 만남이 새롭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백석과 김영춘 시인. 이번 ‘김영춘 시인의 시 이야기’는 그저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 그대로다.



2022년을 뜻있고 즐겁게 보낼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 2022년 3월 28일 ~ 4월 9일
연락처 : 063)905-0218(사무실)



온라인 글쓰기

- 자신의 일상, 살아온 이야기를 매주 1편 글 써서 카페 올리기
- 서로 글 읽고 댓글 달아주기
- 담당자가 카페 개설 및 매주 안내
- 글 형식과 내용은 자유
- 1기 20주 목표 : 20명 이내 참여
- 월 1회 온라인 글쓰기 공부(강사)
- 마무리 발표회 : 공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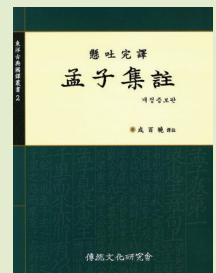
전북향토역사문화답사회 “고대로 가야해”

- 전북 고대사 답사 및 바로 알기
: 마한, 백제, 가야, 후백제 중심으로
 - 고대사 답사를 중심으로 하는 답사 동아리
 - 답사 : 월 1회, 년 8회(매월 셋째 토요일)
 - 전북 고대사 관련 초청강연 결합 공부 병행
 - 초청강연 : 년 1회, 문화원 전체 회원 대상
 - 다양한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
- * 첫모임(답사): 4.16(토) 시간, 장소(개별 안내)



고전의 향기

- 2021년 조직되어 1년간 주 1회 모여 <논어>를 일독했음.
 - 올해는 『맹자』 학습 예정
 - 강사 : 문채병 선생님(한문 전공)
 - 주 1회(매주 목요일 오후 6시~7시30분)
 - 강사의 탁월한 강의로 1시간 30분이 금방 지나가니 부담 없이 참가해도 됨.
 - 사)아이행복 주관 ‘함열향교의 3락’ 행사에 참여하여 특강과 답사 진행 예정
- * 첫모임 : 4.14(목) 오후 6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전주 근영여고 앞)



“일제 수탈의 역사 현장을 찾아서”

답사 경로 : 만경강 새창이다리~임피역~발산초 석물~이영춘 가옥

[편집자 주] 3.1절 하루 전날인 2월 마지막 날, 군산지역(옛 옥구지역) 일제 수탈의 현장을 돌아보며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봄날 아이들, 자녀와 함께 둘러보면 좋은 장소이기에 소개한다.

새창이다리

첫 번째 답사지는 만경강 하류에 위치한 새창이다리(군산시 대야면~김제시 청하면)이다. 새창이다리는 1933년 건설된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멘트 다리로도 유명하다. 그보다 앞서 목천포 다리(1928)가 있었지만 철거되었고, 새만금이 생기기 전까지 망동어, 송어 낚시 장소로 장관을 이뤘던 새창이다리는 다행히 살아남았다. 새창이다리는 일제강점기에 김제평야에서 수탈한 쌀, 농산물을 군산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건설되었다. 옥구, 김제 일대 악질적인 일본지주들이 70% 이상의 고율의 소작료를 받으며 이곳 농민들에게서 수탈한 농산물들을 새창이다리를 통해 군산으로 운반하는 모습을 그려보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 일행은 대야 쪽에서 새창이다리를 걸어서 김제 청하로 넘어갔다. 완주 동상 밤샘에서 발원하여 삼례, 춘포를 거치며 몸을 불린 만경강은 새창이다리가 있는 하류에서는 강폭이 제법 넓다. 다행히 김제시에서는 새창이다리와 신창진(신창나루)에 대한 안내석을 설치해놓았다.

예부터 신창진은 인근에서 거둬들인 조세를 조창으로 운반하던 교통요지로 고사포, 동자포, 춘포로 물길이 연결되며 수많은 배가 드나들던 만경강의 큰 나루터였다고 한다. 지금은 인적이 끊긴 신창나루터에 서서 만경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냈던 민초들의 모습을 그려 본다.(대동여지도에 만경강은 '사수로, 신창진 등 포구들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신창진 부근 '춘우정김선생투수순절추모비'를 찾았다. 신창나루는 1910년 나라를 일제에 빼앗기고 항거하다 군산으로 압송되던 유학자 춘우정 김영상 선생이 투강한 장소이다. 끝내 김영상 선생은 군산 감옥에서 9일 동안 단식하던 중 절명하였다. 이 역사적 사건은 조선말 초상화가로 유명한 채용신이 '춘우정투강순절도'란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우국지사 김영상 선생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역사적인 그림도 마주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신창진 나루터 부근 식당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새창이다리를 건너와 다음 답사지인 임피역으로 향했다.



투수순절추모비



임피역사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임피역은 군산선이 지나는 역이다. 군산선은 1912년 익산에서 군산까지 이어진 철도로, 당시 목포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호남선(1911년 착공, 1914년 완공)과 연결되었다.

또 전라선 일부(익산-전주)가 1914년에 협궤로 건설되었으니 한일합방이 되자마자 전북의 곡창지대는 모두 철도로 연결되어 수탈한 쌀을 군산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했다. 현재 임피역사는 1936년 지은 건축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임피 지역은 지금은 군산시 임피면으로 작은 고을이지만 고려시대엔 군산지역의 주 현이었고, 조선시대 임피현은 13개 면을 거느린 광활한 면적을 지닌 고장으로 1914년 임피면으로 행정 개편이 되어 옥구군으로 병합되었다. 이때 임피현 관할이었던 동이면 등 동부 지역이 서수면이 되었다. 해방 후 주민들은 옥구농민항일항쟁지인 서수면 이엽사농장 터에 임피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술산리 임피역에 도착하니 입구에 옥구항일농민항쟁비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1927년 서수면에 있던 일본 이엽사농장의 고을 소작료에 시달리던 농민조합 청년들이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자 악덕 지주는 들어주기는 커녕 장태성 대표를 군산으로 압송한다. 이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임피역사에서 장태성을 구출하고, 나머지 주동자를 석방하라며 서수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항쟁을 이어간다.

역사 마당에 기차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어서 임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임피면 애국자 이인식 선생(1901~1963)의 독립운동과 농촌교육운동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았다. 이인식 선생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셨고 전 재산을 상해임시정부에 헌납하고 일본,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하셨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임피중 설립과 농촌 교육에 헌신하신 교육자이시다. 임피중 교정에 선생의 흉상이 있다.



옥구항일농민항쟁비(임피중 소재)



발산초 보물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발산초등학교(군산 개정면 소재)이다.

발산초에는 완주 봉림사지에서 가져왔다는 유명한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고려시대, 보물 276호)과 군산 발산리 석등(고려시대, 보물 234호)이 있다.

학교에 불교 문화재인 보물이 2점이나 있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 때문이다. 발산초 터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시마타니 야소야가 운영하던 농장이었다. 시마타니는 쌀 수탈도 모자라 각지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끌어다 모아놓았다.

발산초등학교 뒤뜰에 가보니 아름답고 웅장한 석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비록 제 자리는 아니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용과 구름무늬가 새겨진 독창적인 군산 발산리 석등은 국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모습이다. 석물 옆에는 당시 일본인 지주의 귀중품 보관용 창고(등록문화재 제182호)가 남아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귀중한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강제 반출됐으며, 이를 지켜봐야 했던 당시 민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해방 후 지역민들은 일본인 농장 자리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발산초는 보물을 두 점이나 가지고 있는 학교가 되었다.

석물 앞, 예쁜 학교 건물이 보인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영춘 가옥

답사 마지막 장소는 군산간호대학 부근, 옛 개정병원 언덕에 있는 이영춘 가옥(군산 개정면 소재)이다. 웅장한 은행나무가 서 있는 언덕 위에 서구식 근대 가옥이 있다.

쌍천 이영춘 박사(1903~1980)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농촌의료봉사, 개정중앙병원과 개정간호학교, 일심영아원을 설립하며 평생을 농촌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이다.

이영춘 가옥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군산 지역과 신탄진 화호 지역의 일본인 대지주였던 구마모토 리헤이가 농장 관리를 위해 지은 별장 주택으로 서양식, 한식, 일식 등 여러 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해방 후에 구마모토 농장 의무실 진료소장을 지낸 이영춘 박사가 거주했으며, 현재는 이영춘 박사의 삶의 족적이 전시되어 있다.

이영춘 박사는 평남 용강 출신으로 세브란스의전, 대한민국 1호 의학박사가 되었지만 농민 진료를 위해 1935년 구마모토 농장에 소속된 3,000여 가구 2만여 명의 소작농 가족을 돌보는 자혜의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평생을 농민 진료, 농촌 위생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기관 설립, 결핵 관리, 기생충 박멸 등에 힘쓰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이영춘 가옥을 나오니 어느새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다.

(탐방/글 편집인 이미영)



이영춘 가옥

『푸른 늑대의 파수꾼』 작가와 함께한 독서캠프

이 형 미(서영여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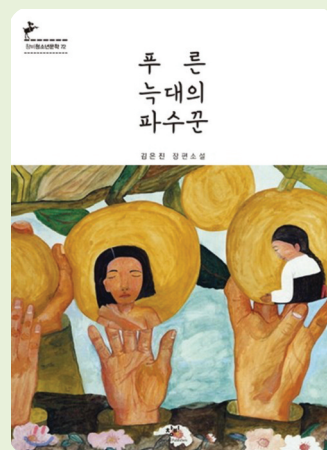
고등학교 도서관을 맡으며 방학 때마다 캠프를 열었다.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캠프’

이 캠프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였다.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청소년 소설을 읽고 작가와의 만남을 가질 것. 10여 년의 세월을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지켜 캠프를 열었다. 특히 청소년 소설을 선택한 것은 어느새 아이들이 인문학이나 지식 위주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담은 책, 마음으로 다가오는 책들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만을 담으려는 각박한 고등학생들의 마음에 풍성한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각자 책을 읽고 작가에게 질문을 고민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어떤 책을 고를까 여러 책을 구입해 읽어보고 선택하여 아이들과 작가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내었던 책을 소개한다.

『푸른 늑대의 파수꾼』(김은진 작가)은 일제 강점기 위안부 이야기를 오늘날 아이들의 눈으로 연결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장편소설이다. 그래서 작품의 배경이 2016년 오늘날의 서울과 1940년대 일제강점기의 경성 거리다. 현재의 아이들이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경험하게 한다. 소설의 간략한 줄거리다.



16세 소년 ‘오햇귀’는 봉사활동을 하러 독거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다. 현수인 할머니는 한때 조선 최고의 여가수를 꿈꾸었다는데 지금은 병들어 누워 계신다. 햇귀는 우연히 태엽이 거꾸로 감기는 시계를 발견해 1940년대 경성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곳에서 햇귀는 소녀 시절 수인과 수인이 식모로 일하는 집의 딸인 하루코를 만나고, 곧 수인에게 닥칠 역사 속의 사건을 알게 된다. 과거 시간 속에서 햇귀는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 수인이를 최선을 다해 구해낸다. 그 과정에서 전쟁이 가져온 아픔을 깊이 돌아보며 할머니에게도 푸른 시절이 있었고 그 푸르름이 어떻게 짓밟히게 되는지를 똑똑히 알게 된다.

독서 캠프에서 만난 작가는 책을 읽고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전쟁범죄와 시민의식에 대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고 과거가 어떻게 현재로 이어지는지를 소설로 표현하기 위해 5년간의 자료조사를 한 과정을 소개해주셨다. 17~18세의 푸르른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소설 속의 이야기로 빨려 들어갔고 작가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1박 2일의 캠프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은 독서신문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기록했다.

아이들 마음속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을 『푸른 늑대의 파수꾼』을 여러분께 권한다.

오늘도 평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자.

서진용(임피중 교장, 본원 사무처장)

오늘도 알람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린다. 신학기 초라 그런지 몸이 천근만근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켜고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실행하여 체크한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있는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는지, 음성인지 양성인지, 오늘이나 어제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지...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새로운 삶의 패턴이다.

겨우 아침을 때우고 ‘오늘도 평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자.’를 주문처럼 읊조리며 집을 나선다. 조금은 쌀쌀한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들으며, 숲 향기 맡으며 등굣길을 걸어 올라간다. 길옆 샛노란 수선화가 수줍게 아침 인사를 한다. 조금 걷다보니 빨간 홍매와 하얀 매화꽃도 반갑게 맞이한다. 조그만 연못의 시원한 분수 물줄기 소리가 북돋아 주는 기운을 머금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3월은 설렘의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초목의 새 움들도, 등굣길 정문 옆 수선화도, 새 학년, 새 학교, 새 친구들 기대로 한껏 부푼 학생들에게도 분명 3월은 가슴 벅찬 설렘의 계절이다.

하지만 올 3월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학생들의 부푼 설렘의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뽕뽕 묶어 버렸고,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2년여 지속되면서 우리 일상은 가히 번아웃 신드롬 상태이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처럼 작은 학교도 피해갈 수 없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악화 속에서 3월 개학 이후 거의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살얼음 위를 걷듯 조마조마한 일상의 연속이다. 한창 넘치는 에너지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생각과 행동의 폭을 넓혀야 할 시기의 학생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학생뿐 아니라 교사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대체교사 확보마저 쉽지 않아 확진교사 뭉까지 수업과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사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팬데믹을 경험하며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다. 학교와 교사의 역할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학교교육은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열심히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잘하는 교육활동이어야 한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크고 넓게 볼 줄 아는 지혜이며, 민주시민의식 함양이다. 학교교육의 지향점과 추구하는 인재상도 달라져야 한다. 미래 사회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창조력이 합쳐진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자기 관리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공동체역량 등을 이끌어내는 교육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임피중학교는 새소리 들으며, 숲 향기 맡으며 생활하는 숲속 작은 학교이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교육력을 발휘한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숲의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 심미적 감성과 정서적 안정은 물론 인문학적, 철학적 사유와 자연과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로써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길러내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주인공이다.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맘껏 끼를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들이 더없이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고전의 향기]

순자는 법충(法蟲)들의 해악을 경고했다.

문채병(본원 이사)

순자는 법을 수호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다반사로 법을 무시하는 법충(法蟲)들의 해악을 경고했다.

법치는 만능이 아니다. 법은 필요 차선일 뿐이다. 법망이 세밀하면 도덕이 실종되고 인간의 마음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진다. “법적으론 문제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된다. 더 나아가 온갖 궤변과 감언이설로 대중들에게 교묘하게 파고들어 흑세무민으로 이끄는 재주까지 부린다면 그 마성(魔性)으로 정신적 치명타를 입힌다. 법을 숭상한다고 주장할 때 박수를 보내고 법을 무시하는 독선에까지 도리어 환호를 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법과 정령(政令)에 앞서 예(禮)와 악(樂)으로 도덕심 배양, 습관화를 우선시 했던 것이다. 예와 악을 통해 도덕인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젊은 층의 대선투표 결과를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진영논리를 떠나 궤변과 선동을 꿰뚫어보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무비판적 우중(愚衆)을 길러낸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항상 인권교육을 주장했지만 공화국 시민이 아닌 오직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항상 옳다는 위아(爲我)적 절름발이 맹목(盲目)교육을 한 것이 아닌지 상심 또한 크다.

가깝게는 전북교육계에서부터 멀리는 국회, 청와대까지 포진해 있는 법충들은 입 열기를 주저하고 신중히 하라. 반면에 진보 교육감들은 그 입을 속히 열어 자책해야 할 것이다.

회원 동정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곽장근(교수)	김미영(학부모)
노호연(교사)	양은희(퇴직교사)
임기대(교장)	소지연(교사)
송안선(영양사)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들의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 2)

김마성 선생님	김종희 선생님
남상팔 선생님	이춘지 선생님

신입 회원을 기다립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전북교육 발전과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해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겹게 소통하고 즐거운 동아리 활동도 함께 합니다.

문의 : 063/905-0218, 010-8626-4935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